

# 5월에 뭐할까? '두근두근' 가족과 함께 공연나들이 가요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행사, 축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 문화기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ACC 창·제작 공연 3작품 선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슈레야를 찾아서' 등 3편의 어린이·청소년 공연을 선보인다.

먼저 '2024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판' 기간(5월 4-6일)에는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과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이 펼쳐진다. 이어 오는 5월 11-12일 어린이 극장에서 '슈레야를 찾아서'가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아제르바이잔 출신 원작자의 자전적 경험이 담긴 동명의 ACC 이야기 그림책을 원작으로 어린이, 인형, 동물의 시선을 통해 전장을 조심히 살펴 답아낸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 참조.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아시아 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화전당만의 독창적인 어린이·청소년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문화향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매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5월 4일(오후 3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2024년 박물관문화향연'이 진행된다.

올해 진행되는 '박물관 속 밴드' 공연에는 2019년 제 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음반 및 노래 부문을 수상한 인디 록 밴드 세이시미가 참여한다. 참석자에게는 '핑크밴드'를 기념품으로 배부한다. (SNS 팔로우

ACC '슈레야를 찾아서' 등 3편 밴드·별문쇼 '박물관 문화 향연' 도립국악단 '작은씨앗 나빌레라' 국립민속국악원 '찾아가는 국악원' 광주예술의전당 '벨벳토끼' 무대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5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이 운영된다. 어린이날 미션 이벤트와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되며 '별문쇼'와 '미스몰리 스트리트 댄스', '태권도 퍼포먼스' 등 특별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어린이 박물관 숲 이야기' (11일),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 (18일) 등이 진행된다. 이애령 박물관장은 "이번 5월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박물관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다"고 전했다. 모든 행사 무료,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전남도립국악단 '작은씨앗 나빌레라'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도립국악단)이 마련한 '작은씨앗 나빌레라'도 이목을 끄는 공연이다. 오는 5월 4일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날 특집 공연으로 도립국악단 소속 어린이 단원 등이 출연,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해 전통 가무악희(歌舞樂戲)를 펼칠 예정이다.

남도민요 '동백타령'을 편곡한 가야금 병창 3중주 '동백'으로 막을 연다. 이어 풍물에서 버구제비들이 버구(자루가 달린 작은 북)를 치며 부르는 노래인 '버구춤', 판국 '연희마당' 등 전통 국악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창작무 '종류바람과 놀다'는 5인 5색의 무용 솔리스트들의 창작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친숙한 동요 메들리로 채워지는 25현 가야금 합주 '아름아름 플레이'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공연장 로비 이벤트(국악프

렌즈 포토존, 굿즈 지급)도 이목을 끈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특집공연 '작은씨앗 나빌레라'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레퍼토리를 정성껏 준비했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람료 1만원. 어린이 무료(동반 가족 50% 할인).

◇광주예술의전당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등 마련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이 '2024 찾아가는 국악원' 광주공연을 오는 5월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전통예술을 전국에 선보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연으로 이후 광주시립예술단이 국립민속국악원을 방문하는 교류 공연도 예정(6월 22일)돼 있다.

어린이날 8일에는 단막 창극, 민요 연극, 비나리의 성악 작품 등 서울곳에서 파생한 민속춤 및 기악 산조합주 5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비나리'에 설정구 가락을 다한 구성, '산조합주'와 '대신부', 민요연극 '사철

어린이 소리극 '벨벳 토끼'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서정적 은유'로 휴머니즘 회복을 기원하다

신철호 특별기획전, 6월1일까지 화순 태곳 미술관

예술 장르에서 비유의 방식은 다양하다. 비판을 위한 아이러니와 반어 등이 있을 수 있고, 반박과 감탄 등을 매개로 강조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작가의 내면에 드러워진 심상을 서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심상에 초점을 두는 서정은 작가의 내면에 드러워진 단면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인간 존재에 대한 또는 실존에 대한 복잡성을 드러내는 데 서정적인 방식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순 태곳 미술관이 '서정적 은유'를 주제로 신철호 특별기획전을 연다.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1991년 조선태조업 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10여년간 작품활동을 펼쳤던 신작가의 작품 세계를 두루 엿볼 수 있는 기회다. 1990년대 이상블라주 작업과 2024년 작품을 오버랩해 보여

주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유희시절, 고독과 소외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갈등을 탐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대사회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기계 문명 속 인간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재료적 소재로 재현된 이상블라주와 콜라주 작업은 설치작업 조형성 외에도 현재의 평면작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후 작가는 'Hope and Harmony'라는 주제로 희망과 조화를 시각언어로 구현한 평면 회화 작업을 진행했다. 음악의 조화,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양분 삼아 작업을 발전시킨 것. 특히 미니멀한 색채와 완만한 선들로 구성된 동양적인 화풍은 휴머니즘 화가를 희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투영돼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선미 부관장은 "몇 년에 걸쳐 덧칠하는 신 작가의 작업은 기계문명이 낳은 비인간화, 물개성화 등 폐해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비움과 채움의 반복적 덧칠 과정은 인간의 본질을 깊이있게 탐색하는 것은 물론 창작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fter Party'



신철호 작가의 기획초대전 전시장 모습.

<태곳미술관 제공>

## 재즈피아니스트 허대욱의 선물

5월11일 '음악이흐른다' 공연장

"동서양을 아우르는 작곡 어법으로 '대림'과 '포용'의 음악적 균형을 찾아 나가는 예술가"

파리재즈 재즈피아니스트 허대욱을 설명하는 음단의 수식어다. 그는 '음악이흐른다'(대표 윤재영) 주최로 공연 '다시, 시작'을 5월 11일 오후 7시 음악이흐른다 공연장(구례군 간전면 간문대평1길1)에서 펼칠 예정이다.

허 씨는 프랑스 에브리국립음악원, 생 모르 음악원을 수석 졸업 후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아 왔다. 파리 재지컬러스 페스티벌과 오 슈드 뒤노드 등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에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발매한 허대욱 6집 '내일이면 봄일까'의 일곱 개 수록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Old vibes'를 비롯해 '사랑 사랑 이별 이별', 'Tlan ttun song', '내일이면 봄일까'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어 'Soul to soul', 'Bluis blues', '인터메조' 등 서정성이 깃든 곡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재즈피아노 특성상 즉흥 연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씨는 이전 공연들에서도 현장에서의 감을 바탕으로 정해진 레퍼토리를 벗어나 솔로 연주를 펼쳐왔다.

이 밖에도 허 씨는 피아노의 현을 탄주하거나 피아노 내·외부를 밟트(타악기를 치는 도구)으



재즈피아니스트 허대욱 <음악이흐른다 제공>

로 두드리는 '프리페어드 주법'을 활용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특색 있는 주법을 보여줄지 이목을 끈다.

음악이흐른다 윤재영 대표는 "이번 공연 제목인 '다시 시작'은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 무언가 다시 시작할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이게 됐다"며 "비교적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지역 사회에 이번 공연이 '단비'가 되길 바라며, 전남과 구례의 관객들이 공연 제목처럼 '다시 시작하는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무료 공연(예약자 한정, 음료비 있음)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